

# 군산사랑상품권 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 내년 2000억 규모 발행 사업 지속 추진·10% 할인 판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가 지난 9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 발매 4개월 만에 총 91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26일 기준으로 905억 원의 판매하며 올해 상품권 판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은 지역의 소비문화를 촉진시키고 경기 부양 유발 효과를 가져와 군산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맹점 접수 조사 및 상품권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고 도소매업 종사자 수의 3.6% 이상이 감소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사랑상품권 시행 이후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중 10% 이내 매출상승 52%, 10~30% 매출상승 33%, 30~50% 매출상승 10%, 50% 이상 매출상승 5%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군산사랑상품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 73.2%가 군산사랑상품권이 시민의 경제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1%가 상품권을 사용한 적 있고 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품권 이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2.9%가 상품권 할인 판매에 찬성했으며 지속적으로 할인판매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자의 88%가 답했으며 주소지 상품권 환급정책 역시 응답자의 63%가 인지하고 있고 73%의 응답자가 주소지 상품권 환급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2019년도에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10% 할인을 판매할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부터는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조정하여 판매한다.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주소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도 2019년부터 지급기준 금액이 달라져 골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김임준 군산시장.

목상권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주소지 15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하면 격월로 1만5,000원의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2019년부터는 지급기준은 동일하나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5만원 이상 사용 시 5,000원, 10만원 이상 1만원, 20만원 이상 2만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사용자의 이용

방법 다양화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도입은 물론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소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며,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정책들을 연계해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을 살리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상품권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속도감 있는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2,00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킬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시민청원제도 신설

### 내년 달라지는 익산시 제도·시책

새해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익산시 제도와 시책을 알아본다.

**▲일반 행정 분야**  
시민청원제도가 신설되어 시 홈페이지 내 시민청원 게시판이 구축된다. 청원 접수 후 30일간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되고 시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인건적 수의계약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인 이하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인건적 수의계약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인 이하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인건적 수의계약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인 이하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보건·복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기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 후 익산시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 사업과 그동안 직장 및 지역기업자 세대주에게만 지원하던 건강검진을 20~30대 청년세대까지 확대하는 청년건강검진 사업이 신설된다.

**▲환경·위생**  
어린이집 연면적 430㎡기준 이상만 실시하던 석면조사 기준이 확대되어 환경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기존 20L 800원, 50L 2,000원 등에서 20L 540원, 50L 1,350원으로 인하하고, 만 2세 이하 영아보육기구에 분기별로 180L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한 5개년 인상 계획에 따라 가정용 1~10㎡/월 550원에서 600원으로, 일반용 1~50㎡/월 1,430원에서 1,790원으로 인상된다.

**▲건설·교통·안전**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주는 빈집재생사업은 무료임대료로 변경된다. 또한 건설 중인 공동주택 검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새로 설치되어 사전에 부실시공과 하자 여부를 예방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는 시내버스노선 결행 시 시민들에게 결행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최초 시행한다.

**▲농림·축산**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주행식 예초기 등의 농사 편의장비가 지원되고, 생생복지 카드는 지원금액이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그동안 관내 어린이집에만 지원되었던 친환경농산물은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 공급되고, 익산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어 농업인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 남중동

###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익산시 남중동(동장 양영진)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강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중동은 기존 바람막이가 없던 승강장에 비닐 바람차단막을 세워 바람을 막는 방식으로 남창초등학교 앞 승강장 2개소에 따뜻한 대기 장소를 마련했다. 설치된 바람막이는겨우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공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남중동 주민은 "예전에는 추워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 이제는 바람이 차단돼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양영진 남중동장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안쓰러웠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남중동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익산시, 내년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 변경 시행

익산시가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1단계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발전사업허가, 2단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입지조건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 순으로 진행됐다.

## 군산시,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노노케어 연중 일자리사업은 지난 28일부터 내년도 1월 4일까지 10일간 총 622명의 어르신들을 모집하게 되며 군산시 20개 읍

면동에 118명, 군산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효림복지센터 등의 장소에 504명의 어르신들이 배치돼 1년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인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면 활동비 27만원

을 받게 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등은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해서는 주민과 사업자 간의 협의 유도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한계도 있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 변경을 통해 민원인 편의제공,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 민원의 선행적 검토 처리 등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선유도특산물판매장, 새해 떡국 나눔 봉사

선유도관광진흥회 조합원으로 구성된 군산선유도특산물판매장이 2019년 새해를 맞아 색다른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연말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점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단,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등은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1월 1일 선유도특산물판매장

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군산시민,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무료로 맛볼 수 있다.

이근중 특산물판매장 운영위원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선유도를 찾아주셔서 주민들이 활기를 찾게 됐다"며 "섬이 육지와 연결되면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민들이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찾고 싶은 군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